

에너지원 수급 불균형 심각해진다!

딜로이트, 25년 후 석유·천연가스 비싸져 ... 대체에너지 개발 주목

석유와 천연가스가 20년 후에는 고가의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전세계 에너지기업 최고경영자(CEO)들이 전망했다.

경영 컨설팅기업 딜로이트가 매출 1억달러 이상의 주요 에너지기업 CEO 등 관련 전문가 5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, 응답자의 4분의 3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싼 에너지원이라고 대답했지만 25년 후에는 응답자의 23% 정도만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표명했다.

또 갈수록 석유와 천연가스 수급균형 유지가 힘들어져 석유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.

응답자의 53%는 미국이 25년 사이에 적정 가격의 석유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고, 50년 후에는 전세계가 미국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응답자 56%가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미국의 석유 수급에 대해 40% 이상은 <현재가 5년 전보다 낫다>고 응답한 반면, 50%는 <더 악화됐다>는 반응을 보였고 6%는 <판단하지 못하겠다>는 입장을 취했다.

석유 고갈과 관련해 응답자의 다수는 현재 상황으로는 천연가스가 가장 바람직한 대체 에너지라고 대답했고 30% 가량은 휘발유와 전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최선의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12/11>